

UR 재협상 쟁취, 국회비준 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농민의 몸부림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전국 9개 농민단체가 주최하고 쌀과 기초농산물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한 「UR 재협상 쟁취, 국회비준 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지난 2월 1일 전국 5만여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개최되었다.

전농민의 생존이 걸린 UR 재협상 및 국회비준 거부를 요

구하고 농업, 농민문제를 전국민적 문제로 확산시켜 정부의 잘못된 수습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농민이 앞장서서 국회비준 거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농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이달 15일 제출키로 한 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를 공란으로 제출하고 재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의 몰락은 타축종의 멸망과 직결되고 나아가 축산업과 농업전체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 제출시 쇠고기는 관세상당치 조건으로 제시해 재협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대회는 1부 식전 행사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



의 문화행사와 노래공연이 있었으며 농민가수 양일호 씨가 「신토불이」를 불러 대회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부 본대회에서 강성원 한국농축우협회장, 박덕영 한농련 회장, 윤정석 전농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루어진 UR협상 결과는 우리 농업, 농민은 물론, 전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에 대해서는 UR재협상과 이행계획서 공란 제출을, 국회에 대해서는 비준반대를, 국민에 대해서는 국회비준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여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기택 민주당 대표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타결된 UR협상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6백만 농민과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민은 국회비준 거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들은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와 국회비준거부 요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축산물 수입개방 절대 반대», 「국회비준 거부», 「UR 재협상 쟁취」등의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수백 개의 깃발과 피켓,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대학로에서 종로5가, 종로3가를

거쳐 재집결지인 탑골공원에서 평화행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진압경찰과 충돌이 발생, 평화행진은 과격시위로 돌변했다.

시위대중 일부는 미대사관 쪽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대치, 전경버스, 경찰순찰차 등을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시청앞 광장 일대에서 밤 늦게까지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9시 30분쯤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가진 후 대부분 해산했다. 